

「物名考」와 「物譜」 解題



金 根 洙

1. 「物名考」와 「物譜」란 어떤 책인가?

「物名考」는 5卷 1册의 寫本으로서 純祖 때(1801~1834)의 實學派의 學者로 또 「諺文志」의 著者로 有名한 柳僖가 지은, 鳥獸·草木·土·石·金·火·水 等の 名錄이고 또한 博物書다.

이 책은 鳥獸, 草木 等を 類別하되, 有情類·無情類·不動類·不靜類로 4分하고, 이것을 다시 有情類는 羽蟲, 獸族(毛蟲, 蠃蟲)(以上 卷1), 水族(鱗蟲, 介蟲)·昆蟲(以上 卷2), 無情類는 풀(卷3), 나무(以上 卷4), 不動類는 흙·물·쇠, 不靜類는 불·물(以上 卷5) 나누었고, 〔날짐승·길짐승·물고기·조개·벌레 등은 그 性質, 빛깔, 形態, 產地 等を, 풀·나무는 그 性質, 빛깔, 大小, 花期, 產地, 用途 等を, 불·물은 性質, 用途 等を 밝히어 博物書로서의 面貌를 모자란 없이 갖추어 놓았다.

다음으로 「物譜」는 1卷 1册의 寫本으로서 實學派의 大學者인 星湖 李瀾(1681~1763)의 從孫 藝圃 李嘉煥(1272~1779)과 그 아들 桶軒 李載威(1745~1826) 父子에 依하여 純祖 2年(1802)에 完成된, 草木·蟲魚·蟲豸·鳥獸·身體·人道·器械·器用 等の 名錄으로서 이 책은 萬物을 둘로 나누어 天生萬物(上篇)과 人爲萬事(下篇)로 하고, 天生萬物을 다시 草木部·蟲魚部·蟲豸部·鳥獸部로 나누고 草木部는 또 禾穀·蔬菜·木果·花卉·藥草·雜木으로, 蟲魚部는 鱗蟲·介蟲·水族으로, 蟲豸部는 走蟲·飛蟲으로, 鳥獸部는 羽蟲(陸會)·羽蟲(水鳥)·毛蟲(窟居)으로 細分했고, 人爲萬事는 身體部·人道部·器械部·器用部로 다시 나누고 이것을 또 다시 身體部는 形體·氣血로, 人道部는 婚姻(僧道附)·衣服(冠服)·衣服(服飾)·飲食(米穀)·飲食(魚肉)·博戲·第宅(棧棧)·第宅(窓戶)·舟車(舟橋)·舟車(車輿)·片馬·交士·商賈·雜部로, 器械部는 耕農蠶織·工丘·佃漁로, 器用部는 酒食·服飾·鼎鑪·筐篋·几案·兵仗 等으로 細分하여 收錄했다.

그리하여 地上 萬物과 人爲 萬事의 이름 語彙集이 바로 이 「物譜」인 것이다.

그리고 兩書엔 漢字名 外에 大部分을 한글名을 달

아 놓았다.

2. 「物名考」와 「物譜」의 類書와 異本

「物名考」類를 크게 나누면, 筆者의 寓目한 바로는, 넷으로 손꼽게 된다. 곧 위에 든 (1) 柳僖의 「物名考」(2) 李嘉煥·李載威의 「物譜」와 그 밖에 (3) 失名氏가 지은 「物名攷」와 (4) 또한 失名氏가 지은 「萬物錄」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는 <萬物의 名錄>이라는 點에 있어서는 類書라고 할 수 있어도, 서로 影響關係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 分類方式도 아주 다른 點으로 보아 어느 本의 異本이랄 수도 없는 책들이다. 이걸 서로 比較하여 보면 곧 알 수 있다.

(1) 柳僖 著 「物名考」는, 前述한 바와 같이, 鳥獸, 草木 等を 有情類·無情類·不動類·不靜類로 크게 나누고 다시 각기 細分했으며,

(2) 李嘉煥·李載威 共著인 「物譜」는, 이것도 前述한 바와 같이, 모든 事物을 天生萬物과 人爲萬事로 兩分하고 다시 天生萬物은 草木部·蟲魚部·蟲豸部·鳥獸部로 四分하고 또 더 細分했고, 人爲萬事는 身體部·人道部·器械部·器用部로 細分하고 또한 더욱 細分했다.

(3) 失名氏 著 「物名攷」는 天地 萬物을 天文類, 地理類·草木類·鳥獸類·蟲魚類·宮室類·舟車類·服食類·耕織類·工匠類·供奉類·交武類·戲俗類·身體類事情類·親屬類·雜人類·魚獵類·雜事類·雜物類 等 20類로 나누었고

(4) 失名氏 著 「萬物錄」은 天地의 萬事萬物을 天文類·地理類·人事類·體部類·禾穀類·飲食類·魚鮮類·菜蔬類·果實類·布帛類·冠帶類·衣服類·靴鳥類·寶見類·佩玩類·器血類·什物類·文房類·帳席類·宮室類·輜乘類·船隻類·量衡類·書寫類·畫圖類·紡織類·寶石類·花草類·樹木類·禽獸類·介蟲類·工器類·冶匠類·石手類·泥匠類·音樂類·軍器類·匠名類·雜技類·雜錄類·染色類·文體類·取材類·文體部·文體部 等 45類로 자세히 나누어 놓았다.

以上에 依하여 各其 類似하면서 다른 方式의 分類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그렇다 하고, 前記 「物名考」類의 異本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柳僖의 「物名考」는 「文通」中에 集錄된 책 中의 一書인 「物名類考」(이것이 「物名考」의 本名인 듯하나 筆者가 본 異本에는 다 「物名考」로 되어 있다.)의 異本으로는 國立圖書館 所藏의 「物名考」와 故 鮎具房之進氏 舊藏의 「物名考」(이 책은 長問光雲氏 손을 거쳐서 故 高橋亨氏에 轉贈되었고, 그 轉贈된 책을 轉寫하여, 이것을 底本으로 하여 影印하여 「朝鮮學報」(第16輯~第20輯)에 連載하였던 것이다.) 등이 있다.

柳僖 著 「物名考」 原本(爲堂 收藏의 「物名類考」)은 筆者가 接한 機會를 얻지 못하여 異本과의 差異를 알 길이 없다. 애오라지 國立圖書館本과 朝鮮學報에 影印되어 실린 것을 대충 比較하여 그 一斑을 더듬어 보면 이 두 異本은 本文上이나 排列上의 差異가 아니라 文字上의 多少의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物譜」의 原本은 臺園의 叔父 貞山 李秉休(1711~1776)의 後孫 李敬衡氏가 간수하고 있다고 하나 寓目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不得已 延世大學校 文科大學 刊 「人文科學」 第5輯(1960년 1월 15일 發行)에 실린 「〈物譜〉와 實學思想」(李家源)에 「物譜」 全文이 실려 있으므로 아쉬운 대로 이것으로 그 全貌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物譜」의 異本으로는 한글학회에 간수된 것이 一筆者의 아는 바로는 一있을 뿐이다.

이제 이 둘을 比較하여 보면 이렇다.

첫째 原本에는 房(驪州後人 李載威書), 卷末에는 跋(臺園의 高第인 後學 完山 李基慶識)이 있는데 한글학회本에는 跋은 없다.

둘째 原本엔 上下 2篇, 上篇 4部 21目과 下篇 4部 28目으로 나누어 9部 49目으로 나누어 있는데, 한글학회 本은 上下 2篇, 上篇 4部 16目과 下篇 2部 10目, 上下 2篇 6部 29目으로 나누어 있다.

셋째 原本의 鳥獸部 羽蟲(1)(2)는 한글학회本에는 각기 陸禽·水鳥로 나누이고, 身體部의 形體와 氣血은 合했으며, 人道部 衣服(2)는 後者에는 없고, 또 飲食(1)(2)는 飲食, 博戲는 같고, 第宅(1)(2)와 舟半(1)는 각기 第宅, 舟車로 띄고, 以下는 後者에 없는 대신에 前者에 없는 疾病, 人倫, 雜物이 있다.

네째 原本은 國語 品名이 999, 漢字 品名이 1469인데 한글학회本은 國語 品名이 664, 漢字 品名이 1044이다. 이것을 前掲 「〈物譜〉와 實學思想」을 參考하여 表로써 보이던 이렇다.

上 篇

部 目 名			原 本		한글학회本		
部 名	目 名	國語品名	漢字品名	國語品名	漢字品名		
草 木	禾 穀	32	54	27	43		
	蔬 菜	菜(1)	24	44	71	109	
		菜(2)	26	45			
		菜(3)	23	28			
	果 木	30	44	30	42		
	花 卉	卉(1)	23	30	33	51	
		卉(2)	16	22			
	藥 草	草(1)	31	52	46	81	
		草(2)	28	40			
	蟲 魚	雜 草	25	46	23	42	
		雜 木	33	39	28	34	
		鱗 介	31	39	24	30	
	蟲 多	蟲 族	20	44	20	42	
		水 走	20	32	17	29	
鳥 獸	走 蟲	30	53	28	47		
	飛 蟲	26	42	22	35		
	羽 禽	蟲(1)	30	50	27	39	
		蟲(2)	20	31	17	28	
毛 蟲	蟲(1)	21	26	33	49		
	蟲(2)	14	24				

下 篇

部 名	目 名	國語品名	漢字品名	國語品名	漢字品名	
身 體	形 體	10	16	33	59	
	血 氣	21	29			
人 道	族 姻	6	16	6	23	
	衣 服	服(1)	19	30	19	30
		服(2)	16	25		
	飲 食	食(1)	30	32	41	66
		食(2)	14	29		
	博 戲	22	33	22	37	
	第 宅	宅(1)	12	21	27	48
		宅(2)	16	23		
	舟 車	車(1)	17	27	18	30
		車(2)	12	21		
器 用	馬 士	22	29			
	文 商	4	7			
	雜 部	6	8			
	耕 農	5	7			
	織 績	農(1)	23	24		
		農(2)	21	26		
	工 匠	績(1)	23	26		
		績(2)	14	35		
	漁 工	23	24			
	病 倫	17	16			
器 用	人 雜			5	5	
	酒 服			1	25	
	鼎 鑪			8	45	
	鐘 宮	21	27			
	案 仗	16	21			
		19	24			
		24	30			
	21	30				
	17	18				

「物名考」中에서 가장 많이 流布되고 異本이 많은 것은 「物名攷」類다.

이 「物名攷」는 前述한 바와 같이, 天文·地理·草木 鳥獸 등으로 20으로 類別한 것이 原本의 分類方式인 듯 하다.

그런데 異本 中에는 草木類를 草類와 木類로, 鳥獸類로 나눈 것과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이런 것은 草木類 鳥獸類에 각기 草木, 鳥獸로 했다. 또 20類目으로 한 것 中에 天文類, 地理類 등이 省略된 異本이 있고, 列擧된 物名이 數量上 多寡의 差가 있으며, 혹은 이것저것을 羅列하고 類別 名目を 붙이여 놓지 않은 것도 있어, 이런 것 一般類라고 假稱했다.

類의 異本	가람本	國會本	竹欄	物名括	(約)A本	(約)B本	誠巖本	일사本
天文類								○
地理類								○
一般類	○	○						
草木類	○	○	○	○		○	○	○ ○ ○
鳥獸類	○	○	○	○		○	○	○ ○
蟲魚類	○	○	○	○		○	○	○ ○
宮室類	○	○			○	○	○	○
舟車類	○	○						○
服食類	○	服+食			○	○	○	○
耕織類	○	○				○		○
工匠類	○	○			○	○		○
供奉類	○	○			○	○		○
文武類	○	○			○	○		○
戲俗類	○				○	○		○
身體類	○				○	○		○
事情類	○							○
親屬類	○				○	○		○
雜人類	○				○	○		○
魚獵類	○	○			○	○		○
雜事類	○				○	○		○
雜物類	○				○	○		○

備考 가람本の 戲俗類는 雜物類 뒤에 두어 있다.

<略稱> 가람文庫藏 物名考...가람本, 國會圖書館藏 物名考...國會本, 가람文庫藏 竹欄物名考...竹欄, 奎章閣藏 物名括...物名括, 金約瑟氏 物名考A本 B本... (約)A本, (約)B本, 筆者藏 約名攷...誠巖本 일사文庫藏 物攷...일사本

끝으로 「萬物錄」 등은, <辛亥(想必 1911年) 仲者 勝柱>란 記錄이 있음을 미루어 原本이 따로 있는 듯하나 찾아 볼 수 없어 後考에 미룬다,

3. 「物名考」와 「物譜」의 著者

「物名考」의 作者 柳僖는 그 初名은 徹, 字는 戒仲, 號는 方便子, 南岳 또는 西陂고 本實은 晉州다.

그는 燕山君을 放逐하고 中宗을 反正시킨 靖國功臣

領議政 靑川府院君 柳順汀의 11代孫이요, 滄雲齋 曹命敎의 門人으로 易學, 禮文, 性理, 詩文, 書, 射, 醫方, 算籌, 星曆에 두루 精通하고, 縣監이었던 柳漢圭의 아들이다.

柳僖의 집안은 代代로 文章과 才智의 傳統이 있고, 그 아버지도 뛰어난 學者인 동시에, 그 母堂은 그 父親의 四聚夫人으로서 全州 李氏고 그 號는 師朱堂으로서, 女流文章家였고 또 經史, 易學, 性理學 등에 精通하여 當時의 名士인 李昌顯, 姜必孝, 李亮淵, 李勉訥 등이 다 師朱堂을 찾아와서 斯文의 疑問處를 質疑하였다 하니, 그 學識의 高明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師朱堂은 그 著書가 적지 않았으나, 「胎敎新書」外는 臨終 때 遺言으로 다 불살라버리게 했다.

「胎敎新書」는 오늘날까지 傳來되어 (元來 落文으로 된 것을 柳僖가 한글로 註解하고, 石泉 申緯이 序를 썼음) 일찌기 上梓된 바 있다.

이와 같이, 代代로 文章과 才智의 傳統있는 집안에, 博學한 父母 사이에서 태어난 柳僖는 어려서부터 聰明과 才智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英祖 46年(1773)에 京畿道 龍仁郡 慕賢面 말피에서 나서 95세(憲宗 3年, 1837)에 돌아갔는데, 그 人格上 學問上 兒親의 感化가 적지 않았음은 勿論이나, 아버지는 그가 열 한살 때 逝去하였으므로 그 어머니의 感化가 보다 컸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는 본시 성질이 곧고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세속에 조화됨이 적었고 才智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를 시기하여 터문이 없는 말로 그를 해치려 하는 자가 있었으나 그는 일체 변명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단체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그 성격이 어머렸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 그는 利用厚生을 本務로 삼아 스스로 농사를 지어 남보다 많은 수확을 얻었으며, 丹陽에 있을 때에는 鄉人들이 그의 孝道와 높은 品位를 敬慕하였고, 廣州에 있을 때엔 그를 부처 같다고 칭송했다.

이런 것으로도 그의 주의와 품격을 아울러 알 수 있다. 그는 實學派의 學者로서 그 著書 中 後孫에게 傳來되는 것 만도 百餘卷이나 되어, 참으로 天文, 地理, 醫學, 卜筮, 種樹, 農政, 風水, 蟲魚, 鳥類 등 精通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 中 「文通」은 그가 親寫한 一大 叢書로서 經, 史, 文, 語 및 博物, 曆算을 網羅한 巨篇이었다.

그 全部를 들어 보면 이렇다.

春秋大旨, 春秋四傳刪誤, 春秋括例分類, 易象數原說, 書古今文訟疑, 春秋經文考異, 考經刊誤發揮, 孝經古文考, 正朔考, 夏小正經傳音義, 詩文名攷, 纂註籌說明實

易詁類訂, 書詁類訂, 詩詁類訂, 國體詁類訂, 儀禮詁類訂, 禮記詁類訂, 春秋詁類訂, 論語詁類訂, 孝經詁類訂, 中庸詁類訂, 大學詁類訂, 孟子詁類訂, 考工記補註補說, 三禮同異考, 論語集註補說, 春秋左傳補說, 春秋穀梁傳註補說, 春秋公羊傳註補說, 中庸章句補說, 大學章句補說, 大學章句發明, 孟子集註補說, 小學集解補說, 周髀算經章句釋, 素問五注補校, 古聖逸語傳, 律呂新書摘解, 物名類考, 量田議, 易除數, 二至山問答, 書字類, 文義類, 禮制類說, 律樂管見辨, 化理類說, 萬物類說, 醫學類說, 觀象志, 諺文志, 胎教新記書義, 陰陽判辨, 困得篇辨, 儼何原本及圖 雜類說, 讀史漫筆, 方便子文錄, 書牘, 賦騷, 方便子詩集, 孔雀行批解, 胎孫篇

이 中 「諺文志」는 1934年頃에 奉天에서 金九經氏 손에 印出된 바 있고, 그 뒤 「한글」誌에 連載(1937年1月號, 2月號)되었고, 1938年 3月 조선어학회에서 單行本으로 刊行되었다.

그리고 「物名考」는 日本 天理大學 內 朝鮮學會 發行 「朝鮮學報」 第16輯(1960)~第20輯(1961年)에 影印·連載되었다.

「物譜」는 1770년 頃에 星湖 李瀾(1681~1763)의 後孫 莢圃 李嘉煥의 손에 처음으로 草稿가 이루어지고, 그걸 體系化하여 類別·整理한 건 그 아들 朴軒 李載威(1745~1826)로서 때는 純祖 2年(1802)이었다.

「物譜」의 跋에

莢圃 李先生은 以濠邁之資로 講聖賢之道하고 上自天人性命之理하며 下至草木鳥獸之名하야 無不精研而貫通하니 眞曠世之學世라

한 것으로 보아 莢圃가 性理學과 名物의 學에 精通했음을 알 수 있고,

「驪州 李氏 世譜」에

嘉煥은 景宗壬寅生으로 字는 吉甫요 號는 例軒이니 忌己亥 3月20日하고 有遺稿하니라(卷6·46) 라 한 것으로 그가 景宗2年(1722)에 나시 正祖3年에 棄世하고 그 字는 吉甫, 그 號는 例軒으로서 「例軒文稿」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文稿는 失傳된 듯하다.

다음 이 「物譜」의 共著者요 또 그것을 體系化하고 類別 整理하고 그 책을 物譜라 命名한 朴軒 李載威에 對해서는 「物譜」跋에

今年 春에 在湖西하야 與先生子載威盧成으로 數從하야 誤經史하고 論古今云云이라

한 것, 「物譜」의 共著者인 것, 「物譜」序 등으로 보아 經史에 精通했고 또 그 父親과 더불어 實學派 學者로 손꼽힐 存在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1. 舊園目學散藁 鄭宣普著 1955 文教堂 刊.
 2. 朝鮮名人著 第2卷 1939年 朝光社 刊.
 3. 「한글」 1937年 1月號, 4月號
 4. 「朝鮮學報」 16輯~20輯 1960~1961年
 5. 「人文科學」 第5輯 1690年 延世大 人文科學研究所 刊.
- (「物名考」와 「物譜」는 讀書問題研究所에서 近刊된다 함)

독서주간 포스터·표어 현상모집

1970년도 제16회 독서주간 포스터와 표어를 다음과 같이 현상 모집합니다.

1. 내용;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계독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내용
2. 요령;
 - ① 포스터·전지반질, 3색이내, 표시: (70. 9. 24~30, 주관: 문교부, 한국 도서관협회, 후원: 문화공보부, 내무부)
 - ② 표어·12자이내, 관계엽서에 기재할 것
3. 마감; 1970년 8월 20일
4. 보낼 곳; 국제사서함 2041호

5. 상금;
 - ① 포스터·당선(1편) 3만원
가작(1편) 1만원
 - ② 표어·당선(1편) 5천원
가작(2편) 각 3천원
6. 발표 및 시상
당선작품은 8월 25일에 개별 통지함.
7. 기타;
주소, 성명을 명기해 주시고 응모작품은 반환치 않음